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부 우 컬 럼

부활(復活)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3:1~3).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를 두고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땅에 묻어둔 직분...,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나는 ‘산 자’일까, 아니면 ‘죽은 자’일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자는 아닐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자신을 진단해보고 죽은 자거든 부활해야 한다.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지키어 회개하는 것’이다. 무작정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회개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절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주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활절을 기하여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과 열매를 맺는 신앙,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주어진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가 되자.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산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그것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오직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지난주일 4부 예배에서 목사님께서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다고 등정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사히 하산해서 돌아와야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회장이다, 사장이다, 판검사네, 의사네, 목사요, 장로요, 뭐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지 못하면 실종일 뿐입니다, 실종! 곧 무엇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는 작금의 사건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잘

분의 삶이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은 되었을지 모르나 인류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결하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이라는 인류 최대의 축복으로 이어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확실한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심, 이 일련의 과정에 그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은 인류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

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11:23~26).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란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3~15).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곧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 하



우리 믿는 자는 죽는 날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한다

못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을 때를 봐야 안다.”고 하지 않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다. 오직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죽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어둠에 떨어져 실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듯이 마지막까지 잘 가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2:25~29).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

한 계획에 화룡정점(畫龍點睛), 곧 위대한 완결이요, 인류역사의 해피엔딩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이름으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

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찬송에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통340장) 하지 않던가.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마냥 큰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경험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정확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부활의 믿음에 동참하여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잘 가는 것이요, 진정한 성공의 등정을 마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4월 2(월)~5일(목) 문의: 02-533-9191

장성예루살렘기도원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14:10~31)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기적

진퇴양난(進退兩難), 사면초가(四面楚歌), 풍전등화(風前燈火), 속수무책(束手無策) ...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지요? 이 말들을 한 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죽겠다’, ‘어떡하나~’입니다.

살다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는 경우, 바람 앞에 촛불 같이 아슬아슬한 상태, 전혀 대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추격해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도망했으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절망은 원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주지...’ 이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손가락질 할 것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실 수 있나.’ 우리도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진퇴양난이란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지만, 위로는 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즉 하늘과 통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모세의 말인즉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통곡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모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 그랬더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의 물이 갈라져 벽처럼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넌습니다.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 갈라졌던 물이 하나 되어 홍해를 건너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14:31).

여러분, 진퇴양난이나 사면초가의 상황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도 하늘로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 우리는 원성을 뿜어낼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다”(시50:15),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 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1:7).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 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는 없지만, 그 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통곡하는 기도를 그 분이 원하십니다. 간이 끊어질 정도의 애끓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겔36:37).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새벽을 틈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던 우리 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 때 이승만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떨리는 음성으로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그 호소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세계 16개국이 연합한 UN군이 조직되어 한국전쟁에 긴급 투입되었고,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마침내 서울을 수복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사면초가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앗수르가 포위했을 때입니다.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으니 손들라고

야유를 퍼붓고 능욕의 서신도 보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서신을 퍼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

합니

다 (사 37:14~15). 그러자 하

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사37:21). 큰일을 이루십니다(사37:33~34). 그날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침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온통 시체뿐이었습니다(사37:36).

앗수르가 물러간 후에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삶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사38:3).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한을 십오 년 연장시켜주셨고,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사38:5~8).

웁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한 자가 있을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욥10:1). 살 이유도, 살아갈 방도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그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욥10:2). 그 기도 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기가 떨어질 정도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하갈이 자식이 목마르다며 죽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때 하던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 에 하나님은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샘이 펄펄 솟게 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눅8:22~23). 예수님 제자 중에는 어부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힘이나 경험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꼼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소리 지르며 야단법석을 떨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풍랑이 이는 상황에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깨울 때 조용히 깨웁니까? 소리 지르며 깨웁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때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십니다.

4월 2일부터 춘계산상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는 그냥 봄나들이 하라고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에 싸인 일들, 풍전등화의 삶, 속수무책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곡하고 부르짖어 그 상황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큰일을 경험하라고 배설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번 집회에 꼭 참석하여 하루 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성공의 비결

셀트리온 그룹 회장 서정진. 그는 32세에 대우그룹 중진이 되었고, 45세에 스스로 퇴사하여 2000년도에 동료들과 바이오회사 셀트리온을 창립, 17년 만에 세계 천 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굴지의 기업을 일군 사람이다.

그의 강연을 보고 의미 있는 조언이 있어 옮겨본다. 45세의 나이에 단돈 5,000만원을 갖고 사업거리를 찾아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 산호세에서 우연히 바이오회사를 보게 되었다. 그것에 꽂혀 들어본 적도 없던 의약 계통의 바이오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은행의 지원을 얻어 사업은 시작되었고, 무려 3천억이 다 들어가도록 성과가 없어 포기하려고 결심하고 자살하면 가장 쉽겠구나 하여 자살할 곳을 찾았다. 강물에 차체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 날을 잡아 미리 봐둔 양수리로 갔는데, 강물에 돌진하려고 가까이 가는 길에 급커브 길에서 큰 트럭이 차선을 넘어와 하마터면 충돌하여 죽을 뻔 했단다. 순간 '내가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왔지, 차에 치어 죽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네.' 하고 15일 후로 미루고 돌아왔단다.

죽기로 결정하고 다 내려놓으니 어려운 때 묵묵히 참아준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그 동안 고생했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서 사죄하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할 것 같았다. 아내와 가족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고맙웠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일이 '미안했다, 고맙웠다.', 은행에 찾아가서 미안했고 고맙웠다고 보름동안 인사

사를 하고 다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고. 더 이상 고려대상조차도 없던 은행에서 서류를 해오라면서 추가 대출을 해주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도 힘내라고 격려해주더라. 다시 양수리에 차 끌고 갈 일이 없어진 것이다. 그 후 회사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를 오늘에 있게 한 것은 그의 경영능력도, 그의 어떤 재주도 아니고 그 날 이후 지금까지 그가 견지해온 한 마디, '미안하다, 고맙다'란다.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사람이 돕지 않으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그 마음과 그 말이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목회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늘 조언해왔다. "우리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실수했으면 내가 주의 종인데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라. 그리고 늘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고 말하라."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15:7).

이시대 목사

:: To Be Succeeded ::

영원한 생명, 예수

'나 가진 재물 없으냐'로 시작하는 찬양을 작시한 송명희 시인은 태어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다. 어둠과 고통의 사춘기 시절을 겪으며 부르짖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느 날 미국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받는데, 그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겠다며 담담하게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스스로는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가 결코 좋아서가 아니다. 외형과 건강은 그대로였지만 철학 같은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참 기쁨과 참 평강을 소유케 되었기 때문이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야말로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치 생명이 없는 자들처럼 좌절과 원망, 시기와 질투, 분열과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곤 한다. 인생과 영생의 지극히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계수하기에 쉽게 교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나, 내 영혼은 생명 길 되니 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심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 육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재 가운데 회개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택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미움도 비판도 원망도 분쟁도..., 실로 그 어떤 것도 다 부질없는 일들이다.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을 힘을 공급받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부활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이유는 넘친다.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우리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기독교 고전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다보면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중 마을에 있던 술집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익숙한 말일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문구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상담을 해주실 때마다 생각하신다고 하셨다. 중고등부 교사의 십계명이 있는

데, 그 중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자들에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사는 삶의 기초요, 초석은 때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절대 악을 행치 않으며,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난히 장난감 욕심이 많은 둘째 아들의 유치원생 때 일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에게 바로바로 사주지 않고 마트에서 구경만 시키고 특별한 날을 정하여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게 했다. 그랬더니 평소엔 안 하던 짓을 한다. 그 장난감 그림을 인터넷으로 찾아 인쇄하고 기도문까지 적어 항상 그 종이를 애지중지 끼고 다니고, 잠자기 전 무릎 꿇고 영당을 치켜 올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 바라보고 기대하게 했더니 하루하루를 그 다가오는 작은 희망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미래를 암시하는 이 문구를 나는 참 좋아한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며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낯선 땅, 개척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다가올 최고의 순간을 갈망하며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적 선언이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에는 '선'(善)이 승리하고, '최고선(最高善)'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기에 고통의 현실도

감내한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말했다. '희망'은 기독교 특유의 것이다. 기독교의 기초가 형성되던 초대교회 때,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대립구조를 '희망 없음'으로 선언한 철학적 도전들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기독교는 '악'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승리하심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최고의 순간을 희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를 불사케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믿는 자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죄가 없는, 최상의 상태이다. 그러기에 죄악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도 요구하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벧후1:4)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거룩'은 죄악된 인간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희망고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루어주실 확실한 희망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에 가능하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확실한 보증(엡1:14)이 되셔서 그 희망을 이루신다.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하나님께 보낸 SOS

제가 강릉교회에 부임할 당시의 일을 간증하러 합니다.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진 목사! 너 강릉갈 수 있겠니? 너 강릉갈 수 있겠니?”라고 세 번을 연달아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무조건 명령하시는 분인데...’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아~그래! 그럼 너 강릉 좀 가라! 강릉교회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아예 배를 간신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어 홀로 방만 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 때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후로 제 마음은 평강을 찾았고 기쁨도 넘치게 되어 주님이 주신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니다.

다음날 봉고차를 몰고 강릉으로 가는데 제 입에서는 하염없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리라. 강릉으로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강릉 가리라...”

강릉에 도착하여 교회를 찾아갔더니 먼저 계신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인수인계를 하고, 준비된 사택에 집을 풀고, 주일에 강릉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침내 강릉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몇 안 되는 교인, 부족한 재정... 참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럴 땐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다 싶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곳 강릉택시 운전사가 새벽에 해변도로 운행 중에 강릉 앞바다 그물에 걸린 북한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포상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도 안 되면 경포대 해수욕장 방파제에 재벌 집 딸이 실연 당해 죽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제가 건져주어 재벌이 내 딸 생명의 은인이라고 보답이라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라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각해서 SOS를칩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의 응답은 엉뚱한데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대관령 고랭지 감자 밭으로 밭걸음을 인도하사 마음의 소원을 심으셨고, 감자농사 지어서 해결하신다는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일 년이 지나 일사천리로 감자농사일이 진행되었습니다. 500평에 씨감자를 캐어 땅속 창고에 보관하고, 다음 해 고랭지 밭 만평을 얻어서 그해 봄에 우리 집사님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어 밭거름하고

두둑 세워 만평 땅에 씨감자를 심으며 농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감자 밭을 볼 때마다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어언 가을이 되고 (그동안 봄날에 뗏돼지가족이 한두 번 산에서 내려와 감자밭 씨앗을 코로 뒤집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일도 있었지만!) 감자농사가 잘되어 추수하고 3,000박스를 수확하여 이젠 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전국의 감자농사가 너무나무 잘된 나머지 씨감자로도 팔기 어렵고 식용으로도 팔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낙심하던 차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해외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아예배에 “우리 교단은 서로 돕고 서로 도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자.” 선포하시고, 전국 교역자는 인천교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웁거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나.’ 싶어 감자 40박스를 봉고차에 싣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 인천교회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먼저 오신 목사님을 만나 뵙고는 ‘이만저만하여 교인들과 감자농사 지어 가져왔으니 맛있게 잡수시고 힘내서 어 세계선교 하십시오.’ 했더니, “야! 너 무슨 꿈꿉이속이 있지? 말해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자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해결해주시겠다고 선뜻 응답해 주시고는 “김진 목사, 얼마에 팔면 되겠니?”하고 물으셨습니다. “한 박스에 2만원에 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물질문제 다 해결됩니다.” 했

더니 행정목사에게 시중에 감자 한 박스 가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시중가격은 한 박스에 만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2만원은 안 돼! 지금 들었지?” 하셔서 “목사님! 연약한 지교회 선교하는 썬 치고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하고 졸랐지만, 목사님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된다고 하시며 성전강단에 오르시어 세미나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세미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감자! 감자!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어찌 보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남아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한 박스에 만 오천 원에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 강릉교회 안 가겠습니다.”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말이야, 3,000박스 다 못 팔고 2,000박스만 내가 팔아줄게. 나머지는 네가 팔아.”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2,000박스 팔아주시고 나머지 1,000박스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 교회가 빚을 청산하고 부흥도 되어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의 영·혼·육 문제를 해결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하시어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 분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수원예수중심교회 김진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들을 귀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오시고 육지에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덧붙이신 한마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인지라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고, 찬송가 맨 앞장에 엄마가 적어준 기도목록을 따라 읽으며 국가와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거나 깨달아 실천하는 일은 크도록 없었지요. 그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들리지 않는 설교에 그다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예배가 끝난 후 심령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고요. 가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초상집에서 실컷 울고 난 후 뒤돌아서 ‘누가 죽었

지?’ 하는 조문객처럼요.

1998년 주일예배 때로 기억합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은 작정을 하고 설교 전 기도시간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싶다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은하게 백합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향기가 진해져서 오늘 강대상 꽃꽂이가 백합인가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강대상에 백합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들렸고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건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바닷가에서 하신 비유에 대해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은 곧 말씀으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

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심 배나 육심 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씨앗은 번번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곤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손은 박수를 치고, 입은 아멘을 외치고, 귀는 듣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들음은 이렇게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들음은 귀가 있다고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육체적인 귀머거리만이 아니지요. 귀가 있으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도 고쳐주십니다. 저처럼요. 단 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 결실을 얻길 소원합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나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27절)